

# 다니엘서 - 제18번

그 시간

Jeff Pippenger

2023-12-13

영감의 증언은 다니엘서 3장이 미국의 주일법을 상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사야 23장에서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두로의 음녀는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계시록의 음녀이다. 계시록 17장에서 그 음녀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 기록되어 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였으며,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가득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요한계시록 17:4, 5.

1950년 이전에는 영어 사전들이 이 두 절에 나타난 여인을 로마 가톨릭 교회로 정확하게 규정했다. 538년부터 1798년에 이르기까지 자행된 가톨릭의 박해라는 암흑시대 이후, 온 세상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음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독립선언서는 가톨릭의 지배와, 그 음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땅의 왕들의 지배를 거부하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이사야서 23장은 그 음녀가 잊혀질 것이라고 밝힌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가 잊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어떤 검색 엔진에서도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를 가톨릭 교회로 정의한 것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날에 두로가 한 왕의 날수에 따라 칠십 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칠십 년의 끝에 두로는 창녀처럼 노래하리라. 수금을 잡고 성읍을 두루 다니라, 잊혀진 창녀여. 고운 곡조를 타고, 노래를 많이 불러서 네가 기억되게 하라. 칠십 년이 끝난 뒤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두로가 다시 그 샅으로 돌아가며, 지면 위의 모든 나라들과 음행하리라. 두로의 장사한 것과 그 샅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될 것이요, 그것을 쌓아 두거나 저축하지 아니하리라. 그 장사한 것은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의 것이 되어, 그들로 넉넉히 먹게 하며 오래 입을 옷이 되리라. 이사야 23:15-18.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1798년 이래로 그 음녀는 잊혀졌으나 마지막 때에 그녀는 기억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일이 공격받을 때 그녀는 기억되며, 그것은 십계명 가운데 항상 기억되어야 했던 유일한 계명이다. 그녀가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감미로운 선율과 많은 노래를 만들 때 그녀는 기억된다. 그녀는 한 왕의 날들인 칠십 년의 끝에 자신의 노래들을 부른다. 다니엘서 2장에 따르면 왕은 곧 나라이다.

사람의 자녀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가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네 손에 넘겨 주셨고, 그들 모두 위에 너를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다. 네가 곧 이 금 머리다. 다니엘 2:38.

'머리'나 '왕'은 모두 한 나라를 상징한다. '한 왕의 날들'로 상징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798년에 바벨론의 음녀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가해졌을 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예언적 통치를 시작했다. 그 나라는 일요일법이 시행될 때까지 성경 예언의 여섯째 나라로 남아 있다. 성경 예언에서 실제로 70년 동안 통치한 문자적 나라는 바벨론이었다.

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북방의 모든 족속들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면의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놀라움과 조롱거리로 만들며,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와 등불의 빛을 끊어 버리리라.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라움이 될 것이며, 이 모든 민족들은 바벨론 왕을 칠십 년 동안 섬기리라. 칠십 년이 차면, 내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를 벌하고 갈대아 사람의 땅도 벌하여, 그것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5:9-12.

실제 바벨론은 칠십 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는 마지막 때에 상징적 칠십 년 동안 통치할 왕국을 예표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세 차례 침공했다. 첫 침공은 여호야김 때였고, 그때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른 칠십 년이 시작되었다. 그 기간은 벨사살의 죽음과 함께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칠십 년의 시작에 여호야김 왕을 벌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왕'을 벌하셨을 때였다. '한 왕의 날들'(한 왕국)의 '칠십 년'으로 묘사된 예언적 왕국은 바벨론이었으며, 두로의 음녀가 잊혀지는 때에 상징적 칠십 년 동안 통치하는 성경 예언의 왕국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1798년에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에서 여섯째 왕국으로의 전환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진리의 일부이다.

내가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그 뿔들 위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으며, 그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의 이름이 있더라. ... 또 내가 보니 다른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3:1, 11.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한이 서 있던 바닷가는 1798년을 상징한다.

교황권이 힘을 빼앗겨 박해를 중지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요한은 용의 음성을 메아리치고 동일한 잔혹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계속해 나갈 새로운 권세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교회와 하나님의 율법에 맞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벌일 이 권세는 어린 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으로 표상되어 있다. 그 이전의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왔으나, 이것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는 그것이 상징하는 나라, 곧 미국의 평화로운 등장을 나타낸다. 시대의 징조, 1910년 2월 8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의 모래를 경계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나뉘었다. 성경 예언의 다섯째 나라는 1798년(바닷가)에서 과거 역사를 대표했고, 여섯째 나라는 미래 역사였다. 밀러주의자들은 이 진리를 보지 못했다. 윌리엄 밀러는 이교의 용의 권세와, 가톨릭의 짐승으로 표상된 다음 왕국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펼치는데, 그는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권세 가운데 셋째다. 그 이야기는 1798년의 바닷가에서 시작된다.

미국은 양의 상징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지만, 용처럼 말하며 그 역사를 마친다. 땅의 짐승의 상징적 70년 통치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한 절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절은

같은 문장 안에서 땅의 짐승의 시작과 끝을 모두 지목하고 있다.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 같이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3:11.

미국이 용처럼 말할 때, 일요일 법령을 제정한다. 미국이 일요일 예배의 강제 시행을 이루기 전에, 배도한 개신교 교회들이 연합하여 짐승의 형상을 이루면서 배도한 정부의 정치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영감은(그리고 반복해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봉헌식이 일요일 법령을 표상한다고 밝히는데, 이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상징적 70년의 끝을 가리킨다. 다니엘서 1장부터 3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표상한다.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일요일 법령 때에 살아 있는 진리가 된다.

예언적으로,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상징적인 칠십 년을 나타낸다. 1장에 나타난 음식에 관한 시험과 여호야קים의 상징은 1장이 예언적으로 첫째 천사가 권세를 받는 때, 곧 1840년 8월 11일이든 혹은 셋째 천사의 역사 속에서의 2001년 9월 11일이든 그때부터 시작함을 가리킨다.

바벨론은 칠십 년 동안 통치했던 나라이며, 그 칠십 년은 미국의 역사를 상징한다. 바벨론의 칠십 년은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봉헌한 뒤 훨씬 뒤에야 끝났지만, 예언적으로는 이사야서 23장에서 사용되는 상징적 칠십 년이 다니엘서 3장에서 끝난다. 느부갓네살의 악단이 봉헌식을 위한 음악을 연주할 때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그때 두로와 바벨론의 음녀가 땅의 왕들에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며, 배도한 이스라엘은 절하고 춤춘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육십 규빗이요 너비는 여섯 규빗이었다. 그는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방백들과 총독들과 군대의 지휘관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치안관들과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였다. 이에 방백들과 총독들과 군대의 지휘관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치안관들과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봉헌식에 모였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백성들아,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쓰는 자들아, 너희에게 명한다.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색부트와 비파와 덜시머와 온갖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타는 불가마 한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모든 백성이, 곧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색부트와 비파와 온갖 악기의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다니엘서 3:1-7.

그 '때', 또는 같은 '시간'(이는 미국의 일요일법을 가리킨다)에 금 신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 한가운데에 던져질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시간'으로 번역된 단어가 들어 있는 유일한 책은 다니엘서이다. 3장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는 짐승의 표의 도래를 나타낸다. 또한 4장에서 '시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나타내는데, 거기서는 그것이 느부갓네살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경고하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때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한 시간 동안 놀라며 그의 생각들이 그를 번민하게 하였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그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너는 번민하지 말라 하니,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그 해석이 왕의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 4:19.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한 경고를 전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이후 그 경고를 거절했다. 4장에서 그 "시간"이 다시 사용될 때에는, 그 심판이 도래한 "시간"을 가리킨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시간"은 1798년 첫째 천사의 도착을 나타낸다. 그 기별은 1844년 10월 22일 조사 심판이 시작될 때 성취되었다. 4장의 "시간"은 처음에는 임박한 심판의 기별을 상징하고, 이어서는 심판이 도래했음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다. "시간"이라는 말의 첫 번째 사용은 1798년과 첫째 천사의 도착을, 두 번째 사용은 1844년 10월 22일과 셋째 천사의 도착을 나타낸다.

같은 시각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고,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고 손톱이 새의 발톱처럼 될 때까지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어 있었다. 다니엘서 4:33.

그러므로 4장의 '한 시간'은 1798년과 1844년, 곧 이스라엘의 북왕국(저주가 기원전 723년에 시작됨)과 남왕국(저주가 기원전 677년에 시작됨)에 대한 '일곱 때'의 두 저주가 끝나는 시점을 상징한다. 그 두 저주는 2,520년에 걸친 흠어짐과 종살이를 나타내며, 그분의 배도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첫째와 마지막 진노의 집행을 의미한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되었고, 각기 그 끝은 하나님의 다가오는 조사심판에 대한 경고의 기별, 혹은 조사심판의 도래를 상징한다. '일곱 때'의 두 심판의 종료로 표상되는 그 두 심판은 다니엘서 4장에서 '한 시간'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

밀러파 역사에서 '시간'은 1798년 끝의 때에 첫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시작된 그 운동을 가리키며,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시간'은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의 그 운동의 끝을 가리킨다. 첫째 천사의 밀러파 운동은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 반복되므로, 4장에서 '시간'이 두 번 사용된 것은 1989년의 끝의 때를, 그리고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도 표시한다. 첫째 천사의 밀러파 운동은 조사 심판의 개시를 선포했고, 셋째 천사의 운동은 하나님의 집행 심판의 개시를 선포하는데, 그 심판은 점진적이며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고 격화된다.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다음 글에서 "hour"라는 단어에 대한 고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들처럼 보낸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며,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할 것은 그때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기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이 성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성으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다 다니지 못하리라. 제자가 스승보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그의 스승과 같아지고, 종이 그의 주인과 같아지는 것으로 족하니라. 만일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리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 중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 중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귀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16-28.